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로 향상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주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3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교회학교 총동원 전도

내 친구가 땅끝입니다

5-6월 새친구 초청잔치의 달

매년 5월과 6월은 교회학교의 총동원전도 기간이다. 교회학교의 각 부서는 매년 이때가 되면 이미 수주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초청할 친구들의 이름을 작성하고, 초청 당일에 그들을 맞이할 풍성한 잔치들을 준비한다. 이미 지난 주일(21일) 고등부는 제2교육관 4층의 새집회실에서 300여명의 새친구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잔치를 벌인 바 있다.

5월에는 영아부와 유년부, 중등2부와 3부, 신혼가정부 등이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는 초등부와 중등1부, 청년2부와 청년2부 등이 총동원 대신자 전도잔치 혹은 새가족 초청잔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충현의 성도들은 각 부서에서부터 영혼을 건지는 열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부흥을 위한 기도와 열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충현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예배

앞서 기념세미나 · 음악제 등 열려

충현복지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4일(수)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념예배는 복지관 학생 및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필수 목사(봉사위원회 지도)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기념예배에 앞서 복지관은 5월 22일(월)에는 기념세미나를 가졌고, 23일(화)에는 정신지체인 음악제를 가졌는데, 특히 음악제에는 500여명의 학

부도들의 참석하여 매우 풍성한 축하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충현복지관은 개관 5주년을 맞아 더 쉽게 배우고 더 쉽게 활용하기-기능 중심 교과과정 '함께 알아봅시다' 정신지체인의 인권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사례집' 등 세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교역자 사임

장영자 전도사, 오인숙 전도사, 오정숙 전도사, 계선화 전도사 등 4인의 전도사가 5월 31일부로 사임한다. 계선화 전도사는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었으며 장영자, 오인숙, 오정숙 전도사는 교회의 목회적 방침에 따라 권고사임되었다.

한편, 금번 사임은 지난 1월 발생한 당회장 테러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교회는 성도들 간에 무리한 추측과 근거없는 소문이 돌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는 임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교회의 복음적 갱신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하겠다.

농어촌전도 춘천 전원교회로

5교구는 6월 5일(월) 춘천에 위치한 전원교회(민규식 목사)로 농어촌 전도를 떠난다. 당일 행사로 진행된 금번 전도행사를 통해서 5교구는 축조전도 및 미마음 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전도예배를 드리고 초청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주일오후기도회 중단

매주일 오후 3시에 갈릴리움에서 열린 주일 오후기도회'가 5부 예배와의 중복 관계로 중단된다.

모든 성도들은 충현의 젊은이들이 드리는 5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2000년도 의료선교 대행전

외선부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보다 활발한 의료선교를 위한 중대한 주춧돌이 될 2000년도 의료선교 대행전이 다음 주일 오전 10부터 동문주차장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 동문주차장에 주차하던 성도들은 주차공간이 좁더라도 이날만은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위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 권면하고 초청하여 그들이 이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협력하여야겠다.

선교위원회

단기선교 참가자 모임

지난 5월 25일(목) 만나홀과 매추라기 홀에서는 지난 1998년도 이후 여름과 겨울에 단기선교단으로 참가했던 성도들이 모여서 단기선교참가자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식탁의 교제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나라별 선교지도와 지속적인 사역자 발굴 등을 위해 기도제목을 공유하면서 협할 것을 다짐하였다. 성도들은 우리교회 단기선교가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감에 따라, 세계선교를 위한 창의적 선교전략을 세워갈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각 지에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는 선교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다.

군전도회 25사단 세례식

군전도회는 지난 5월 25일(목) 25사단 세례식을 위해 일꾼들을 파견하였다. 성도들은 건국세례식이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양육으로 연결되고, 그들이 제대할 후에도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워내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중보를 쉬지 말아야 하겠다.

6월의 주요행사

정기당회(7일)

성령강림기념 특별금요집회(9일)

성령강림주일(11일)

정기제직회(11일 전양예배후)

제3차 학습세례식(25일)

6월 기도원 담당

차병중 목사(성요한, 초동부 지도)

청년1부 여름수련회
성경하기를 원하십니까?

2000년대를 여는 첫 해의 여름수련회가 드디어 6월5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지난 몇년간 하계사역의 발전으로 삼았던 방향을 전환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진리이시며 영원하고 참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복권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여름수련회 기간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깨달은 말씀을 품고 그것을 청지기적 적용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있을 것임이다.

금주의 영성훈련
8교구 · 17교구 연합으로

지난 5월 25일에는 8교구와 17교구가 연합하여 영성훈련을 가졌고, 돌아오는 6월 1일에는 5교구와 9교구가 연합하여 영성훈련을 가지게 된다. 해당교구의 성도들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정신으로 부끄러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잠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성령강림(오순절)기념 특별집회
6월 9일 금요찬양집회

2000년도 성령강림주일(오순절)을 앞두고 교회는 6월 9일 저녁 특별금요찬양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달 부활주일을 앞두고 거행되었던 금요특별집회와 같은 성격으로 진행되는 금번 집회는 오순절과 성령강림에 관련된 일련의 말씀들을 봉독하면서 기도·찬양·간증·찬송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특별순서는 변영여성주장단, 김희숙 집사, 목사동장단 등이 맡게 된다. 성도들은 행2:1-11, 창11:1-9, 겔37:1-14, 롬8:22-27, 롬8:14-17, 사44:1-8, 요7:37-39, 요15:26-27, 요16:7-15, 고전12:3-13, 요20:19-22 등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다.

제2교육관 완공
교·대·청 전용 사용공간으로

제2교육관이 완공되어 교·대·청분부가 본격적인 사용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2교육관은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된다. 교회의 모든 부서들은 제2교육관이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협력해 주길 바라며, 이곳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참된 영적 성장의 장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전파하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Christ & His gift

(John 16:29-33)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His disciples said, ‘Lord, now You are speaking plainly and are not using a figure of speech. Now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and have no need for anyone to question You; by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vv. 29-30). The beginning of this passage reveals the disciples’ knowledge of Jesus’ deity. Just prior to this conversation, the disciples were questioning the meaning of some of Jesus’ words (see vv. 17-18). They weren’t talking to Jesus but among each other. They couldn’t discern what He was speaking about, and deep inside they really wanted to question Him. Jesus knew of their dilemma; He could read their hearts like open books. That’s why they believed Him. To some Jesus was able to show God’s glory, and to others He was able to show them their hearts. He could do both. It was His knowledge of God and the human heart that convinced the disciples that He was, indeed, the Son of God.

It’s here, in today’s message, that Christ communicates as a realist. He tells His disciples that in spite of their belief, they would desert Him. Even though they now believed, they would soon break faith. Their loyalty was shallow. Jesus knew all this; He knew everything. God gave the disciples the truth, and He also gave them knowledge of the truth. As the Son of God, Jesus knew His disciples were not perfect, and that they would forsake Him. He knew their weak points. He knew they would fail. Whenever He truly needed them, they would not be there. And yet, He loved them as they were. Moreover, He believed in them, even though they would betray Him. Jesus knows the evil things of humans, yet He loves them endlessly.

Unlike humans, who can forgive but find it difficult to trust again, Jesus can forgive and believe. Jesus knew that His disciples would desert Him, but He still loved them. He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experience victory! That’s why He tells them ahead of time that they will first forsake Him

but He will still love them. That’s why He responds to their statement of belief with, “Do you now believe?” (v. 31). That’s why He tells them to be brave because they will receive victory. In this world, forgiveness and trust don’t go hand-in-hand. In Jesus, this happens! Forgiveness and trust are unified. Jesus shows us, here in John 16:29-33, how He forgives us, how we

never be forsaken by God.

Even though Jesus’ disciples would forsake Him, He would forgive them. There is forgiveness in Jesus. When His friends abandoned Him, He did not upbraid them. After His resurrection, He did not go against them. He loved them as they were. Love must be clear sighted. If we idolize a person and think he/she

they actually do anything disheartening, to make them ready afterward. In so doing, He defines His mercy and forgiveness. Jesus doesn’t think about how His disciples sin will hurt Him, but rather how it will hurt them! Sometimes it makes all the difference when we realize how much our sins hurt us, and how they drive us to regret and a sorrowful aching heart.

There is such a wonderful gift in Jesus. His love provides the courage to face each day and the power to conquer each day’s dilemmas. Very soon, something was going to be unanswerably proved to His disciples. They were going to see that the world could do its worst to Jesus, and still not defeat Him. His victory would be their victory. The world would do its worst to Him, and He would emerge victorious. Life can do its worst to you, and you, too, can emerge victorious! We overwhelming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8-29). Amen! You, too, can possess courage and conquest of the cros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y beloved Choong Hyun family, Jesus loves us. He knows each one of us so intimately. Through Him our strengths increase and our weaknesses decrease. Human frailty is caused by sin and Jesus knows this. He loves us as we are, despite our flaws. His gift of life, which He offers freely to all who believe in Him, is priceless—beyond the most valuable of treasures. There’s no other gift, above or below heaven, like the gift of Christ. No one can earn it or buy it, though many try, because grace doesn’t come in any other form but through faith. And all can find it down at the cross, where our Savior died. 卐

That’s why He responds to their statement of belief with, “Do you now believe?” (v. 31). That’s why He tells them to be brave because they will receive victory. In this world, forgiveness and trust don’t go hand-in-hand. In Jesus, this happens! Forgiveness and trust are unified. Jesus shows us, here in John 16:29-33, how He forgives us, how we fail, and how He still believes in us.

fail, and how He still believes in us.

First of all, Jesus tells His disciples, “Behold, an hour is coming, and has already come, for you to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 and to leave Me alone; and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v. 32). Jesus would not have the pleasure of the company of His disciples when the time would be most helpful. He would be lonesome without them during His suffering, but He would not “be alone.” God the Father would always be with Him. Truly, humans can’t stand for righteousness, but thankfully God stands for us in righteousness. There’s not one good man upon the face of this earth. Everyone, at one time or another, will be forsaken by another human being, but man will

faultless, we are doomed to disappointment. We must love them as they really are. Amen!

Jesus displays sympathy toward the weak and imperfect. There is compassion in Jesus.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v. 33). Jesus saw His disciples’ sinful nature. He prepared them for the shock that their disloyalty would cause them. He reassured them that their wrong doings would not effect His love for them. Their unfavorable actions would not make a difference toward His love. When they would think about their sins afterward, Jesus didn’t want them to despair. He tells them now, before



김성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

(요 16:29-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 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29-30절). 이 구절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16:17,18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있기 전,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께 묻고 싶지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마치 왜곡을 피서 들여다보듯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30절). 예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을 요(11:4),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사139:7).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셨으며, 인간과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그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는 예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도는 장차 벌어질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에 흔들릴 것을 알고, 자신을 저버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곧 깨어질 것이라니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절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자신을 저버릴 것이라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면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참으로 필요로 하실 때, 당당히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 자체로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록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심성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성품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는 있으나 배신한 자를 다시 신뢰하기 힘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용서하고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용서하시고 신뢰하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예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버릴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참된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 자체로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완벽한 사람이라기 때문에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곧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이러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마태도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31절)며 제자들에게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담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요16:29-33을 통해 그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32절). 예수께서는 그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그의 제자들과 친구로서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동안에는 도망친 제자들로 인하여 고독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홀로”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은 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격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도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편에 서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괴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두 번씩은 버림받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비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동정을 보셨습니다. 예수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33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취약한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딪치게 될 충격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지지르게 될 실수가 그들을 향한 사랑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그의 사랑을 결코 변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되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실패하게 된다고 그들 심기지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심으로 그의 자비와 용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죄가 어떻게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그들이 상처 입게 될 용서를 생각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자신을 상하게 하는가를 깨닫고, 어떻게 그 죄들이 우리를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한 쓰라린 마음으로 몰고 가

는지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예수

예수 안에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매순간 직면하는 것들에 대해 담대해지도록 용기를 주며, 삶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께 가장 악한 것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를 패배시키지 못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제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를 패배시키기 위한 가장 악한 것을 저지르는 것이지만, 예수는 승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다보면 당신도 생명을 빼앗기는 가장 불행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역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통하여 압도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있는 자나 미래에 있는 자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죄로 몰아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8,39). 아멘!

참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를 향하여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점을 가진 자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그 어떤 가장 가치 있는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이러한 선물을 얻거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도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은혜이며, 그 은혜는 믿음 위에 어떤 행태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 그의 십자가로 말문을 향하는 자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내외국인선교부 '중국의 날' 행사 성황중에 마쳐

“예수님은 우리 중국인에게도 구주입니다”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는 지난 21일 '중국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를 위해 외선부 중국팀은 한 달 전부터 기도회로 주제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일 출석 인원 30명 정도인 중국팀은 주로 한족과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주족도 약간 명 참석하고 있다. 중국팀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선 중국팀 내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영성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다시 불러모으며, 아직 교회를 알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중국팀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은 중국어 전도지와 외선부 전도지도를 가지고 주일, 의정부, 안산, 성남, 광주 등으로 전도·심방을 다녔다. 중국인 형제들이 대개 저녁까지 일을 하므로, 전도·심방이 저녁 늦게 이루어져 교사들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도 이렇게 있는 이방인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 모든 교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한 달 동안의 준비를 끝내고, 행사 이틀 전에는 금요일 기도회로 모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전날 중국인들이 교회에 미리 모여 다음 날 먹을 중국식 만두를 만들고 또 집회 장소 장식·꾸미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 당일, 기도하듯 목표한 100명의

중국인들이 차례 차례 집회 장소(제2교육관 2층)에 도착했다. 설교를 포함하여 모든 순서가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리화춘 자매의 기도, 손복남 형제의 중국식 찬양, 왕형제 등의 찬양, 이혜연 자매의 간증, 왕동생 형제 등의 드라

마, 왕쌍이 형제의 독창 그리고 장소와 자매 등의 합창이 이어졌다. 이 날 교회에 처음 나온 중국인은 물론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에게도 중국의 날 프로그램은 감동과 흥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이혜연 자매의 간증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또한 중국인들의 전체 찬양은 듣는 이들에게 찬양이 무엇인지의 보여주기도 남음이 있었다. 이 날 주일 집회에 참석한 300명의 외국인들과 80여명의 한국인 봉사자들은 행사 후,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으며, 4부 예배 김성관 담임목사님의 설교로 다시 한번 은혜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외선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한 주일씩 나비날로 특화시켜 그 나라 말로 설교, 찬양, 기도,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스페인,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행사를 치렀으며, 7월에는 '인도의 날'을 처음 열 예정이다. 이제 '중국의 날' 행사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마침에 만족하지 않고, 외선부는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내실 있는 부서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선교위원회)



저는 중국에서 온 이혜연이라 합니다. 저는 본가인 어머니의 인도하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중등2학년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어요. 중국은 무신론 나라입니다. 당시 교회에 나갈 때에는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또 제가 공청단이고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가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당시 우리집에서 어머니와 저만 예수를 믿고 그의 복음을 모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여 우리는 가장 핍박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은 점점 강해지고 저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여 저는 22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45년전부터 중국 정부의 교회 핍박은 날로 가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어머니의 신앙과 또 교회를 꼭 세우겠다는 의지의 불꽃은 점점 더 강하게 한곳에 교회를 정하고 예배 드리다가 핍박하면 또 다른 곳으로 어떻게든 찾아다니기 시작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공안국에도 얼마나 붙잡혀 갔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와 교회일을 하거나 몇번이나 공안국에도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에 우리교회는 핍박속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올바른 신앙과 강한 믿음속에서 저의 신앙은 별로 커졌습니다. 원래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밭도 못가파는 무서운 공포증과 열 걸의 없고 자라던 언덕만 여섯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밭도 없고 대밭하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에 와서도 매우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히 제가 출원기도원에서 3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겁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과 경리이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들입니다. 겉은 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온전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매일매일 살아 전하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꼭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스스름이 없이 얘기하는 가장 친한 친구지간이요, 형제 자매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믿어도 화끈하게 자신의 생명이 바쳐서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꼭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겁니다.

- '중국의 날' 행사에 이혜연씨의 간증 -

방글라데시 기도모임



○ 해초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여성교사님 일이 여기 와서 무엇을 느꼈고도 없었다. 어려서 지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사육내내 품었던 마음을 대담으로 하였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왔었다는 말이 들어요.” 나 하나가 아닌 우리들 모두의 말이었으리라... 이 모임은 을 겨울에 방글라데시를 다 나온 지체들의 기도모임이다. 우리는 후속사역인 이 름으로 2주에 한회씩 토요일 오전에 만난다. 먼저 서로의 삶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사님의 말씀 전함으로 이어진다. 그 후에 그곳에서 만난 다국대역에서 만난 한사람한사람의 영혼들과, 시골에서 만난 교회와 그곳의 현지 목사님 그리고 다음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곳에서 함께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방글라데시를 가장 사랑할 때인 것 같다. 2주에 한회씩 모인 기도모임이 조만간 매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기도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최고의 후속사역이라 생각한다. 정현주(대학부)

VISION7000 복음화운동 전도집회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

지난 5월 21일 젊은이관(제2교육관) 4층으로 이전한 고등부는 첫 집회를 VISION7000 복음화운동 전도집회로 가졌다. 'VISION7000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젊은이로'라는 표어는 '칠천명이라는 인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무릎꿇지 않았던 칠천명(왕상19:18)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헌신된 젊은 일꾼을 배출하는 비전'이라고 조문찬(고등부 지도) 목사는 설명한다.

이날 행사에는 새 신자 130여명, 총 인원 700여명이 참석해 600석 넘었던 4층 집회실의 좌석이 부족했다는 즐거운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에 참석했던 1000여명(새신자 600여명)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다. 이에 관하여 이번 행사의 기획위원이었던 한혜성(고등부 선교부 지도) 선생은 “작년의 경우 ‘뚝이’처럼 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경 삼아 한 번 와보는 허수가 있었고, 사후관리의 미비함으로 대다수의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총동원주의의 전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회고하며 “이번 행사의 주인공들은 많은 인원의 참석이 아니라 작년을 통해 확 일한 고등부의 비전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위력”으로 언급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일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 전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죠. 그 혼란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VISION7000의 2년차 상

반기 목표는 ‘일대일 전도’와 ‘잃은 양 찾기’였다”고 조문찬(고등부 지도) 선생은 설명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대신자를 품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한사람의 대신자를 인도하도록 유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양육해 나가겠다’는 약속(교양의)의 다짐처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방침과 아울러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전도 집회를 마련한 것이다. 집회, 전교, 5부 예배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10여개 소그룹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영상물만 제공유가 상영되어, 특별 찬양팀의 찬양, 성극과 워십팀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젊은이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김원일(고등부 복음화과정)의 주장을 반영하듯,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하며,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이태윤 학생회장과 고등부 지체들의 다부진 고백들은 부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복음전도를 향한 자신감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사색에서 승리하여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정총 전도사)



사랑부 선생님이 되어서...

이수란 (대학부 2년)



교회 안을 지나가다가 사랑부 학생들을 만나면 피하곤 했었다. 생김생김이 다르고 자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마 여러 성도들도 예전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부 1학년 생활 중 친구를 따라 사랑부에서 봉사하게 된 후론 그 생각들이 바뀌었다. 그 당시엔 나의 부족함도 모른 채 학생들을 그저 도와준다는 의미로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야 말았다. 언제까지나 나의 오만함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의 장래가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을 알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골3:2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애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한 그들에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

나님은 그들을 우리들과 똑같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거나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느냐는 것이다. 사랑부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금방 느끼는 것 같다. 비록 언어장애로 말을 할 못해도, 글씨를 못 써도, 잘못 알아들어도...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금방 느끼는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이 과의 만남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간식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이 학생들을 통해 감사함을 배우고 낮아지는 것을 배운다. 내가 불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우스웠던 것들인지...

주님은 자신을 낫추는 자를 놀이시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여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한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보기

죄의 덫, 명예살인

인간의 타락성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가? 종교성을 자랑으로 삼는 이슬람의 세계에도 그 부패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집트,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터키 등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는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여성 학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명예살인'이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여성의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남자 형제 등에 의해서 구타하거나 폭력, 살해당하는 것이다.

한 예로 1998년 12월 28일 '페르비'라는 여성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 의해 얼굴이 심각하게 안도질당했다. 코와 귀가 잘려나갔으며 눈동자는 뿔뿔해졌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여성을 학대하는 가해자들이 담당하게 자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슬람의 법칙 개념에 피해자와 혈연관계에 있으면 남성에게 '명예보호'라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구속되거나 법정에서 가해지는 거의 없다고 여겨온 단체나 인권 변호사들은 말한다.

죄는 인간의 본질을 가장 마귀적이고 살인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종교성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언제 어디서 끔찍스러운 행동을 시도할지 모른다. 태초에 흠뻑이린 인간 속에 내주하셨던 성령께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죄악의 권세를 떨치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세계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이다. 그들의 타락한 종교성과 범죄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중생의 새롭고 힘이 필요한 것이다(히10:22). (김동하 목사)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주성 ♥ 강혜정' 부부를 소개합니다



펜팔로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 부부는 신혼처벌 엠티 보는데 세번째 아이의 출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어릴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형제는 결혼후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두분은 다 세례교인입니다만 자매님을 따라 교회에 오게된 조주성 형제는 어머니를 따라 다녔던 자신의 신앙세계와 너무나 다른 기독교에 대해 깊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되시는 형제의 마음속 고민을 자신의 성경책 잘 모으기에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통한 깊은 훈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특선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이니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소박한 축하



햇볕이 제법 뜨거운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는 이맘 때, 신부들의 얇은 웨딩드레스 자락이 초여름 바람에 가볍게 실리며 혼인예배가 시작된다. 축가의 순서가 도래한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여남은 명의 남녀들로 아예 줄서는 모습이 들쭉날쭉 자유분방하다. 웃도 서로 맞춰 입지 않아 가지각색이다. 가끔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땀방울이 쏙스러워하는 친구도 보인다. 긴장된 기색에, 반주에 이어지는 발성도 그다지 조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는 동안 신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객들도 이 소박한 믿음의 소리에 감동한듯 숙연해진다. 친구들은 이날을 위해 몇주전부터 연습을 해왔을 것이다. 누구누구가 화을 놓아야 한다고 송장에도 있었을 터이고, 자기네들의 축가가 신랑, 신부와 하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기도하리라 여러 번, 또 결혼식 당일에는 어떤 차례로 나아가서 서서 찬양할지도 의논했을 것이다.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 동지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불린 축가.

신랑, 신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푸는 친구들의 사랑이 두고두고 고마울 것이고, 잊혀지지 않는 결혼의 자랑으로 남을 것이다. (편지실)

내 입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25년전 가을, 우리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 소도시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오래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복사님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그날 저녁 예배때 특송을 하라고 권하였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직접에 전도는 받고 있었지만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였으므로 아는 찬송이 있을 리 없었다.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위기가 많이 나오면서도 어렵지 않은 곡을 선정하여 오후 내내 나에게 찬송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는 성도를 앞에서 부끄러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453장을 불렀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이라”

물론 누가 목자이고 누가 양이며 또 인도하시어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었다. 그저 푸른 풀, 맑은 시내, 노을 비치는 고운 황혼, 예쁜 새 등의 위기가 좋았을 뿐 찬양으로서의 의미를 몰랐으니 내게는 하나의 노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이 찬송은 내 입술의 찬송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25년을 살았다. 삶의 기쁨과 슬픔이 무수히 우리를 스쳐갔다. 나에게 찬양을 가르치신 남편은 반백의 중년이 되고 나 역시 자꾸 나이가 의식되는 연령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인 주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양이다.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착한 양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스리랑카 형제들에게



자유보완 (스리랑카) 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뜻) 막상 편지를 쓸려니 조금은 이상하네요. 우리가 만난지도 7개월이 다 되네요. 그동안 정말 재미있었던 일이 너무나 많았죠. 스리랑카 당기 설교 한다고 아리까리 형님 한데 언어 배

우리 갖을 때부터 시작

에서 그때 정말 속스러웠는데 지금은 포용 하기 까지 하고 아바라고 부를 정도까지 농담하

니 정말 설기합니다.

그리고 THE DAY OF SRI LANKA 날도 생각납니다. 준비 할 때는 힘들었지만 행사날 때는 정말 멋있었어. 그리고 창개산 등산 간 것도 생각 나네요. 등산하는데 일들어서 같이 끌어

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피구까지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

아침 저녁 식사까지 맛있고 먹었죠. 전 형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씩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음을... 그리고 저에게 스리랑카어를 가르쳐 주시는 가미나 선생님 감사하고요. 언제나 친구처럼 형처럼 같이 있어주는 날리까 아

디까리 수보도 크리스찬처럼 우리형님들 정말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그외의 모든 스리랑카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탁하나 할까요 지금도 열심히지만 더욱더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거는 건강이요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구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어렵고 일할때도 조심하세요.

위험하고 힘든 일기 알아야 됩네시구요. 제가 언제나 생각 날 때 마다 기도 할게요. 이제

이만 줄일게요

언제나 주안에서 승리하시구요 사랑합니다.

2000년5월24일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용연이가

일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다듬어진 모습이 되었으면”

장 민 (청년부)



나는 매봉역 부근에 위치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Digital Communication)”에서 웹디자인을 중심으로 회사에 필요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관련 콘텐츠 비즈니스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처음엔 웹디자인만 하고 싶었는데 어찌하다보니 여러 종류의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년 10월 기도와 고민 끝에 이곳에 오게 되었고 어느덧 7개월이란 짧지만 긴 시간이 흘렀다.

성격상(?) 틀이 있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 적응할지 걱정했지만 같이 일하는 청년부 회원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아직까진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가족 같은 느낌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곳에서 일하며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교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여건으로 자유롭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청년부 행사가 있으면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 양해해 주셔서 고마울 따름이다. 이곳에 오기전 동지 중 하나도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달 전부터 드디어 이곳에서도 아침에 간단하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순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QT 말고도 아침에 예배로 인파를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더 깊이 있고 진전할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회사 특성상 회사를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시

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더 정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듯 주변 상황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간다. 좋은 점도 많지만 내가 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들기도 하다.

특히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채워주는 디자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맘과 몸이 일치하 안되어서 나 자신이 안타까워 보인다. 이런 하루하루 속에 회사에 와서 아침과 점심 식사 후 하시는 커피는 정말 향기롭게 느껴진다. 또한...커피 타는 실력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냉커피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아직 다른 사람과 달리 이곳에 글을 쓸만한 주님과 나 자신과의 특별한 ‘무엇’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나의 미래에 대해 주님께서 뚜렷한 비전을 받지 못했기에 오늘도 이 코너에 참여하며 할 자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곳에 몸담고 일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할지 어디에서 해야할지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음성과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하는 마르다가 될 때가 많은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놓인 무거운 영적 과정을 해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다듬어진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하루도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며 성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재물 소식

유년부
오늘은 새친구 초청잔치날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새친구초청잔치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중동학교 1학년과 2학년 어린이들은 모두모두 참석하세요.

행사명: 새친구초청잔치

일시: 28일(오늘) 10:30

장소: 유년부 예배실(교육관 314호)

주제: 전하자 예수님! 데리오자 나의 친구!

특별행사: 인형극, 의사소, 달란트잔치

청년2부
5월 21일 성경퀴즈대회

청년2부(부장: 이종섭 장로, 면리회장: 김동석 집사)는 5월 21일 교육관 5층 집회실에서 '사도행전과 성경상식'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다. 퀴즈대회는 25개의 성경공부조에서 25명의 대표들을 선발한 뒤 이들을 조의 순차대로 5개의 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모두 25개의 문제를 출제했으며 11조와 15조 대표들로부터 구성된 제3팀이 총점 90점으로 우승했다.

청년2부가 매주 조별로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의 문제를 위주로, 난센스 퀴즈, 방정제 문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했다. 정답을 맞추고도 긴장해 있다가도 즉석상품을 주는 행운문제, 감정과 상점 문제 등이 나올 때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방정제 문제의 경우, 맞추면 소속된 조가 들어있는 출전 팀에 점수를 더해 주도록 했다. 그래서 청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다.

청년2부는 지난해부터 집회시간에 사도행전을 주제로 강해설교를 듣고 조별 성경공부를 계속, 5월말 현재 제20장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퀴즈대회는 '성경행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진'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복음 전파자로 힘있게 살도록 하려고 마련했다.

(청년2부 통신원)

16교구
영성훈련

과천, 안양, 안산, 평촌, 산본, 수원, 천안 등 하나의 도시간 지역이고 구역이 방대하게 퍼져있기에 주일 교구 모임장소에서 만나지 못하면 서로 같은 교구 식구인지도 모르는 곳이 16교구이다. 이러한 여건인지를 교구모임때마다 영성훈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도록 부지역장과 구역장들에게 권면하였다. 영성훈련이 있던 날 18일 아침 배스를 가리키며 모였던 구역식구들은 서로의 구역을 확인하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 기대가 넘쳤다. 1부예배에 정영민목사님은 야1:1-8 "나의 사랑하는 자" 제목으로 성도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히 풀어 자세히 전하셨다. 성도가 영적 계층에 빠져서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앞에 어떤 자제로 나아가지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예배드리를 권하였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권면하셨다. 2부목회에서 7교구 김병태목사님은 빌3:1로 "행동해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다문화와 달리 7교구와 연합영성훈련으로 말씀 묵상으로 오전후 통상한 말씀의 잔치였다.

(한숙정 통신원)

물매들

보리밭기

구재완 (집사, 고동무 교사)

예전에는 요즈음과 달리 시골에서 밀이나 보리를 많이 경작하였다. 특히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보리를 파종하면 썩이 나서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봄에 성장하여 꽃을 피운 후 6월에서 7월경에 수확을 한다. 그런데 겨울동안에는 어느 것을 막기 위하여 거름이나 질 등을 덮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모두 치우는 데 치운 후에 꽃집추위 등으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땅이 얼어 지표층의 일부가 부풀어오르게 된다. 이때에 보리의 뿌리가 부풀어진 사이에 놓이게 되므로 얼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하여 '보리밭기'를 하는 것이다(물론 춘화처리(Vernalization)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곤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련들을 이겨내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이 있을 후에는 보리도 밭은 후에 더욱 성장을 잘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더욱 성장하리라 본다. 우리 모두 보리밭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탐방

New Creator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세희 (대학부)



작업의 비전 확립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미술을 공부하는 지체들을 만나 보면서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아울러 확고한 세계관과 비전 확립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미술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New Creator가 전문 문화 사역팀이 되어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나도 계속 활동하는 소그룹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의 4가지 목적을 세웠는데 바로 기독교 세계관 확립, 실력 무장, 영성 성장 도모, 비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 모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해나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씩 전시장을 찾다니며 실력 무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자회들의 소명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갈릴리움 복도에서 "사자"이란 주제를 가지고 첫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 속에 오는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다시 한번 교회 내에서 전시회를 가지고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술에 관심 있으신 지체분들의 기도 부탁드리며 아울러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w Creator는 새로운 창조자란 뜻으로 중헌 대학부 내의 소그룹으로서 기독교미술인 모임입니다. New Creator는 미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1997년 4월 기독교미술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결성되었으며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본당 지하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New Creator는 미술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한 미술계에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직 학생들이라 미숙하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술분야가 여러 종류이듯 회원의 전공도 회화, 도예, 사진, 실내건축,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이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라고 치부하는데 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 말과 글을 쓰듯 미술인은 감상자와 대화하기 위해 미술로 대화를 합니다. 다만 익숙지 않은 것이라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작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New Creator에서는 이 작가의 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정한 채 휘젓거리는 미술계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자 합니다.

처음 New Creator를 결성했을 때 모두들 미술이 왜 교회에 있지 않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미술 전공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 한데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또한 한편으로 자기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신교관 지하 2층
매주리굴

◀'말씀한 양식'
-연적 중 일부
김희선(청년부)



◀'아주중
송다라'
-연적 중 일부
이지영(청년부)

연락처:
총무
대학부 5학년
이세희
019-392-7708

